

종로3가로 온 ‘한국 바람’ : 이주 여성 생존 회로의 업힘에 관한 연구

이희영*

요약 이 연구는 21세기 지구화의 과정에서 중국인 동포 여성의 생존 회로가 ‘종로3가’와 결합하며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첫째, 중국인 동포 여성들과 중·고령 성매매 장소인 종로3가의 마주침은 창발적 세계-만들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중국과 한국을 주요 장소로 하는 돌봄 노동, 가족부양, 성매매 그리고 친밀성이 결합하는 생존 회로가 횡단-신체적으로 확장하며 새롭게 구축된다. 둘째, 종로3가의 성적 서비스는 이주 여성들에게 가족부양과 노후 준비 그리고 ‘코리언 드림’을 실현할 가성비 좋은 일자리이자, 강도 높은 단속과 폭력, 갈등 그리고 성적, 감정적 돌봄을 수행하는 ‘위험한 노동’이다. 셋째, 이 연구 결과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섹슈얼리티와 비자연적,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대립시키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규범을 넘어서며, ‘박카스 이줌마’라는 기존의 블랙박스를 해체한다.

주요어 종로3가, 조선족 이주 여성, 성매매, 생존 회로, 횡단-신체성

이 논문은 2024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2024-0398).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종로3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사)막달레나공동체의 이옥정 대표, 노수미, 윤선미 씨의 지원이 연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참여한 구술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대구대, 사회학, 교수, biograf@daegu.ac.kr

횡단-신체성은 얼마나 다양한 물질들이 인간의 몸 안에서, 인간 몸을 가로질러 이동하는지 추적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들이 무언가 종종 반갑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무언가를 실행하는지 추적한다(스테이시 앨리모 2018: 353).

1.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여성들의 생존 회로

이 연구는 서울의 '종로3가'¹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동포 여성들의 성매매 과정에 주목한다. 여성들이 국경을 넘어 이중적인 언어, 제도, 규범, 도구, 기기 등과 얽히며, 적극적, 수동적으로 몸과 함께 변화하는 삶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 몸의 노골적인 식민지성을 수용하며 모성을 실천하는 여성들과 환경의 이중적 생존 회로(Sassen 2002)가 횡단-신체적으로 구축되고 확장하는 과정을 기술할 것이다.

한국의 성매매 지형에서 세계도시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3가는 상징적인 중·고령 성매매 장소로 알려져 있다. 종로3가는 1970~80년대 산업화의 시기를 거치며 남성 주류 집단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를 포함한 행위자들이 복합적으로 형성한 문화의 장소가 되었다. 또 1990년대 IMF 경제위기 전후 실직, 퇴직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 영역에서 배제된 중·고령 남성들이 탐골공원과 종묘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남성 노인' 공간을 형성하는 것과 더불어 소위 박카스 아줌마가 사회적인 주목을 받았다. 전문적인 직무 능력이 없는 여성들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중·고령이 되면서 저임금 서비스 업종을 거쳐 종로3가의 거리 성매매에 나서게 되는 경로를 보여준다(이희영 2020; 이희영·윤선미 2022).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박카스 아줌마'는 여전히 유명 같은 존재, 즉 비체로 재현된다.²

종로3가에 중국인 동포 여성들이 등장한 것은 대략 2000년대 초반인 것으로

1 이 연구에서 '종로3가'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중·고령 성매매 장소를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종로3가로 표기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

2 최근 종로3가에 대한 언론 보도로는 다음을 참고하라(월간조선 2023).

추정된다(이호선 2012).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의 동북 3성에 거주하던 동포들 사이에 '한국 바람'이 불고 노동, 혼인, 친지 방문 등의 방식으로 이주가 시작된 후 수년이 흐른 시점이다. 외모의 차이가 없는 동포 여성들이 한국 여성들의 활동 공간 주변에서 혹은 교차하며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서 종로3가가 국제적 생존 회로에 접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21세기 지구화의 과정에서 조선인 중국 여성의 국지적 생존 회로가 종로3가와 결합하며 이중적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것은 곧 '박카스 아줌마' 혹은 '중국 아줌마'가 몇 명인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박카스 아줌마'로 되어가는 과정을 추적하고 기술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언제나 몸으로 일하며 식민지성을 체현하는 동시에 젠더적 규범을 초과해 온 노년 성매매의 양상에 다가가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주요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동북 3성의 '한국 바람'과 종로3가 성매매 네트워크가 이중적으로 교차하는 생존 회로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종로3가에서 생활하는 중국인 동포 여성들의 '생존전략'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셋째, 연구 결과가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인가?

2. 기존 연구 검토와 주요 개념

1) 신자유주의 생존 회로와 동북 3성의 '한국 바람'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화의 과정은 자본과 권력이 집중된 세계도시와 더불어 위계적으로 주변화된 노동 세계를 재구축한다. 또한 '이주의 여성화'로 압축되는 생존 회로가 국경을 넘어 다층적으로 확장되는 과정이다(김현미 2006; 파레냐스 2009). 이런 회로에는 여성과 이동을 성 산업에 투입하여 더 많은 이윤을 얻는 이주자 밀거래와 모국 정부의 주요한 세입원이 되는 일반 이주 등이 포함된다. 특히 외국 국적 여성을 고용하거나 이용하는 양상은 경제 영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국가에서 불법인 성매매에서부터 고도로 규제된 직종인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러한 과정의 핵심 행위자들은 일을 찾아 나서는 개인, 모국 정부, 불법 인신 매매업자 및 중개업자들이다(사센 2013: 21-22).

소위 한국 바람으로 불리는 중국 조선족 자치주 내의 ‘코리언 드림’은 1978년 개혁개방에 이어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가속화되었다. 한국의 높은 임금³과 자본주의적 발전이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하면서 조선족 농촌지역 개인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필연적 선택으로 여겨졌고, 여성들의 국제 이주가 증장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이어졌다(김은실·민가영 2004; 김화선 2011; 서정경 2014; 최재현·김숙진 2016). 그 결과 중국의 조선족 공동체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생산력 저하와 더불어 가족과 공동체 내 역할 구조의 변화가 드러나기도 했다(권태환·박광성 2004; 여필순 2013).⁴

한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동포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들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화적 관계를 경험하면서 가족 및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갈등과 가능성을 타진한다(이미에 2008; 이해웅 2005b). 여성들은 한국 정착의 과정에서 접속하는 다양한 행위자와 더불어 모국과의 경제(송금, 장사), 문화적 연결을 유지하며 초국적 모성을 실현하는 주체이다(Gan 2016). 다른 한편 결혼 등을 계기로 이주한 여성들은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가족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시민권을 제약받고 있으며(황정미 2011),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자들의 경험은 한국 내 비공식 부분에서 고강도 노동과 건강 악화를 겪는 현실을 드러낸다. 즉 ‘코리언 드림’은 생존 회로 속 중국인 동포 여성들의 비/자발적 ‘자기 희생’의 과정임을 시사한다(이해웅 2014).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중국인 동포 여성과 종로3가 성매매 공간의 접촉과 얽힘에 주목한다.

3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국 식당의 월급은 약 70~80만 원(최소 1만 위안)으로 이것은 당시 중국 교수 월급(약 400위안)의 20~30배에 달하는 ‘환율적 가치’를 가졌다(이해웅 2014: 234). 2000년대 초 한국에서 받는 1달 월급(가치)은 중국과 비교하여 대략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미에 2008: 79, 92).

4 2021년 10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 198만 명 중 조선족 동포는 약 78만 명(약 40%)이다. 이 중 중국 국적자는 약 63만 명이고, 여성은 절반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연합뉴스 2022.09.02).

2) 열린 몸과 횡단-신체성

이 연구에서 횡단-신체성은 성매매 공간과 조선족 여성들의 이중적 얽힘(entanglement)을 고찰하는 개념이자 연구의 관점이다. 횡단-신체성(trans-corporeality)이란 몸들을 가로지르는 운동(성)이다. 서로 다른 장소인 몸들을 가로지르는 횡단-신체성에 주목함으로써 인간의 몸, 비인간 생명체, 생태계, 화학 작용물 등 이중적 행위자 사이의 상호교환과 상호연결을 드러내게 한다(앨러이모 2018: 19).⁵ 인간의 몸은 주위의 생태환경, 비인간 생명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마주치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이때 몸은 완결적 유기체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에 대해 열려 있는 끈적끈적한 다공체로, 이중적 경계를 넘어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복합적인 얽힘이 발생하는 접촉면이자 세계 발생의 장소로 사유된다(앨러이모 2018: 49).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의 몸에 주목해 온 여성주의 연구의 전통에서 인간의 물질성에 천착하여⁶ 성매매와 연관된 인간, 장소, 물질 등의 상호 연관에 주목하게 한다. 특히 성매매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의 몸이 인간을 넘어서는 세계와 소통하는 물질적 상호 관계와 그것의 작용력(material agency)을 고찰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것은 성매매 공간에서 인종화, 성애화된 여성의 몸이 이중적으로 횡단하는 타자와 결합하며 새로운 세계짓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려는 시도이다.

5 앨러이모에 의하면, 인간의 음식 섭취가 식물과 동물을 몸, 즉 살로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음식이야말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최적인 횡단-신체적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독성물질 혹은 일상적인 공기, 수분, 미생물 등이 인간의 몸으로 흡입되고 배설되면서 결국 인간 존재의 구성 물질이 되고 있다(2018: 41-43).

6 대표적인 이론적 논의는 브라이도터(2024)를 참고하라. 한국 내 이주 여성의 몸(경험)에 주목한 소수의 연구로는 다음이 있다(변혜정 2007; 이해웅 2014; 이희영 2014).

3. 종로3가의 이주여성과 생존전략

1) 연구 방법과 구술자 소개

이 연구는 생애사 연구(이희영 2005; Rosenthal 1995)와 종로3가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Rosenthal 2014)에 기초하여 수행되었다.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biographical research)와 참여관찰은 해석적 연구의 지평에서 행위자의 체험에 주목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애사는 특정한 행위자와 직면했던 사회, 역사의 상호적 생성물이며, 개별 사례는 그 자체로 특정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concrete generality)을 체현한다(Fischer-Rosenthal 1990: 31).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종로3가 이주 여성의 일상생활 경험에 다가가기 위해 서사적 생애사 인터뷰 자료와 종로3가 지역에 대한 참여관찰 기록⁷을 분석하여 재구성하였다. 분석 과정은 가설추론적(abduction) 방식에 기초하여 개방성과 순차성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후 생애사의 세 가지 차원(a life as lived, a life as told, a life as experienced)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각 사례를 재구성하였고, 개별 사례의 특성을 최대 비교와 최소 비교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주요 질문과 연관된 각 사례의 주요 경험을 전체 맥락에서 기술(description)하였다.

연구 과정을 소개하면, 2019년 이후 수년에 걸쳐 이어진 필자를 포함한 관련 단체의 활동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주여성들이 조심스럽게 접촉을 시작하였다. 종로3가에서 생활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김미순 씨와 처음 인터뷰가 이루어진 후 이진희, 이정미, 송인자 씨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순자 씨를 만나 생애 이야기를 나누었다. 구술자들의 간단한 생애 이력을 소개하면 <표 1>과 같다.

7 참여관찰과 인터뷰는 종로3가에서 생활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막달레나공동체가 2019년 모텔 골목에 사랑방을 마련한 후 2024년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는 아웃리치 등과 함께 진행되었다.

표 1. 구술자 생애 이력⁸

| 이름 | 출생년도(나이) 출생지 | 가족관계 (학력) | 한국입국 (계기) | 한국 내 일 경험 | 종3 이동 경로 |
|-----|----------------------|---|---------------------------------|---|---|
| 이정미 | 1952(72) 중국 A시 | 1남 1녀(미상) 2009년 남편 사망, 2020년 한국 남성과 동거 중 | 2008년 친지 초청 | 경기, 서울지역 모텔 청소 | 2020년 모텔에 서 만난 남성의 소개 |
| 송인자 | 1954(70) 중국 A시 | 1녀 1남 (미상) 2011년 남편 사망 | 2014년 친지 초청 | 천안, 마석, 남양주 등에서 간병 | 2018년 간병과 종로3가 병행 2021년 전업 |
| 박순자 | 1955(69) 중국 B시 | 1녀(고졸) 1992년 남편 사망 | 딸(국제 결혼) 초청으로 2002년 입국 | 지방 공장 노동, 서울 모텔 청소, 숙식 가정부, 간병 | 2015년 간병했던 남성의 소개 |
| 김미순 | 1958(66) 중국 A시 | 1녀 1남(미상) 2006년 이혼 2007년 한국 남성과 재혼 | 1990년대 중반 (산업연수생) | 여관 청소, 미장 보조, 식당일 | 2000년대 후반, 종로3가 전철역 지하, 지상 |
| 이진희 | 1971(53) 중국 C시 | 1999년 이혼(중졸) 2021년 남편 사망 | 1995년 국제결혼 | 과일, 칫솔, 야채, 빵 장사, 옷 가게, 식당일, 전화 발이 | 2000년대 중반 탑골공원, 종묘, 종로3가역 지하, 1번 출구 지상 |

먼저 구술 참여자 5명 중 4명은 1950년대에 동북 3성에서 출생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자녀 세대에 가까운 1970년대 출생자이다. 현재 60~70대인 네 명의 여성은 중국의 문화혁명(1966~1976년)이 진행되던 시기 청소년으로 지역과 학교에서 새로운 사회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세대에 속한다. 또한 20대의 성인이 된 시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동북 3성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활동하였다. 즉 이 세대 중국인 동포 여성들은 한편으로 정치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문화혁명 광풍 속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주체였으며, 다른 한편 개혁개방과 더불어 변화된 시장경제 체제에 적응하며 생활해 온 주역들이다(방미화 2021: 243~244).

8 모든 인명과 지명 등은 신상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변경함.

이에 비해 현재 50대인 이진희 씨는 개혁개방 이전의 사회문화적 질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1990년대에 형성된 강력한 ‘한국 바람’ 속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중반 한국에 온 김미순 씨는 당시 중국에 남편과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2000년대에 한국으로 온 이정미 씨와 송인자 씨는 이주 전후에 각각 남편이 사망했다. 반면 박순자 씨의 경우 30대 말인 1990년대 초 남편이 사망했고, 10년이 지난 뒤 한국에 왔다.⁹ 이들이 한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는 1995~2014년에 걸쳐있고, 체류 기간도 약 10~30년 사이의 차이가 있다.

2) 별거벗은 생명, 비국민, 국민 그리고 섹슈얼리티

1995년 이모의 소개로 14살 연상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진희 씨(당시 24세)는 서울의 월세방으로 이주한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¹⁰ 남편과 과일, 채소, 찻술, 빵 장사를 하다가 식당 일 등의 생계 노동을 했다. 그런데 남편은 일을 하지 않고 경마장에서 도박하는 날이 더 많았다. 이진희 씨는 1999년 여름 임신을 확인한 후 “그냥 혼자 몸뚱이(로) 성○○○ 병원 가갖고 지워버렸다”(이진희 구술녹취록 2021/1).¹¹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이혼했다. “돈 벌러 나왔는데” 남편은 도박 중독이고, 하루 벌어서 생활하는 현실을 생각하며 자기 몸에서 진행되는 생식 과정에 저항했다. 임신과 의학적 생식 기술에 의한 임신 중단은 여성의 몸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횡단-신체적 과정이다. 이진희 씨는 자연화된 재생산 도구로서의 몸을 거부하고, 성애화된 몸의 권력인 남편과의 관계도 끊어버린 것이다.

낮선 땅에 혼자가 된 이진희 씨는 식당에서 만난 남성이 “놀다 가자”고 제안해

9 중장년 기혼 여성의 한국 이주 배경으로 자녀 교육, 노후 대비, 중국에서의 사별 또는 이혼이 중요하게 언급된다(이해웅 2005: 111).

10 사랑과 친밀성이 자본주의적 욕망과 결합하는 후기 근대사회 및 이주 결혼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이재경 2009).

11 이 글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즉 괄호 안의 내용은 이진희 씨와 2021년 인터뷰했던 구술녹취록의 1쪽을 인용한다는 뜻이다.

같이 갔던 여관에서 뺨뺨를 받아 '전화발이'¹²를 하게 되었다(이진희 구술녹취록 2024/9). 언젠가 마주친 남편이 '자기도 한번 하고 싶다'고 하자 쫓아버렸다. 그에게 전(前)남편은 더 이상 성적, 경제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었다.

1990년대 중반 30대 말의 나이에 산업연수생으로¹³ 한국에 온 김미순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벗은 생명'(Agamben 1998), 즉 불법 체류 상태로 건설 노동, 식당일 등을 하며 중국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생활비를 지원했다. 10여 년이 지나던 중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의를 위해 남편과 "가짜 이혼"을 했다.

“애네[아들과 딸]를 공부를 시켜야겠는데 어찌겠는가 하면서 내 벌어야 되지 않는가 하면서, 근데 한국에서 적응하자면 불법 체류는 일도 안 시키고 아무런 자유도 없으니까 저기, 한 남자 있는데 그 남자랑 결혼하면 그래도 자유스럽게 일하고 내 이렇게 불법이 아니라서 잘 풀려나가니까 이혼하자 한니까 (...) 우리 그때 그래서 이혼했어. 불법이라고(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10).

남편과 이혼을 협의할 때 김미순 씨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진짜 이혼”이 돼버렸다고 했다. 식당에서 일하며 만난 한국 남성이 “잘 도와줄 테니 같이 살자”고 제안하자 2007년 재혼하고 영주권을 갖게 되었다. 재혼한 남편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일하는 동안 딸과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각 한국으로 이주했다. 한식 요리사였던 남편은 60세가 넘어 주유소에서 5년 정도 일하다가, 건물 경비원이 되었다.

12 여관으로 오는 전화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 거래를 뜻한다.

13 중국 조선족 동포의 이주는 대한민국의 시기별 정책 즉, 산업연수생제도(1991), 특별 고용허가제(2004), 방문취업제(2007) 및 국제결혼 등과 결합하며 복합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전까지 동포 여성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의 신분으로 돌봄 노동에 종사했다. 이후 방문취업제에 따라 5년 유효한 H-2 비자로 34개 업종 취업이 가능해지고, 2008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위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

3) 주변적 배치와 번역: “너무 좋은 일”

2000년대 중반 식당의 일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종로3가 전철역에서 환승 겸 잠시 쉬고 있던 김미순 씨에게 낯선 남성 노인이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하자 회들짝 놀라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쨌친다”고 욕을 해주고 집으로 갔다. 다음 날 그곳을 지나며 만난 남성을 통해 ‘거기는 그런 자리’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후 김미순 씨는 며칠 동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바쁘게 돌아가는 식당 설거지 등을 했는데 “그 날따라 욕이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일할 줄 모른다고서리”.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역사의 계단에 앉았다가 “뭐 여기 있는 거 가 보자”며 한 남성이 데려가는 ○○장 모텔로 갔다.

“[남성이 모텔에] 제 돈 내더라고, 내고 나면 [나에게]3만 원 주데, 잠깐 했는데. 그러니 돈 주고 돈 주니까 난 너무 좋더라고[마음] 속이. 내 돈 벌러 사는데. 잠깐 했는데 이렇게 3만 원 주고 나는 6시간 쓰러지게 욕먹으며 일해도 3만 원 버는 게. 썩어지게 욕먹고 정말, 정말 별난 말 다 들으며 욕먹고 했는데. 이 무슨 6시간 했는데 그때. 그런데 3만 원 벌었는데 한 시간도 아니 돼서 3만 원 버니까 너무 좋더라고, 내 그때 기분이.”(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1-2).

위의 텍스트에는 돈 벌기 위해 중국에 가족을 두고 한국에서 일해온 김미순 씨에게 “썩어지게 욕을 먹으며 6시간 일해도” 3만 원을 받은 것과 “잠깐 해주고” 3만 원을 받게 되어 “너무 좋”던 그날의 경험이 대비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 며칠을 자책하며 지역을 옮겨 월급제 한식집을 찾아서 일을 했다. 그런데 ‘말귀가 어두워 자꾸 싫은 소리를 듣게 되어’ 힘든 중에 “내 돈 벌러 오는 데 이것저것 가릴 게 있나 무슨 (...) 창피스러운 게 뭐 있나”고 다짐하며 다시 종로3가로 왔다. 당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벌금으로 1회 50만 원¹⁴을 내게 돼도 하루 5~6배 이상의 수입이 있어서 “좋았다”.

14 최근 단속에 걸린 여성들은 벌금으로 평균 100만 원씩을 내고 있다.

1954년 3남매 중 막내로 출생한 송인자 씨는 1975년 음악 교사였던 남성과 결혼했으나 농사를 지으며 12명의 시댁 식구를 부양했다. 남편은 1985년 교사직에서 해고된 후 외도하여 분가했고 송인자 씨는 혼자서 아들과 딸을 양육했다. 이후 다시 돌아온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결혼, 분가시켰다. 남편은 2011년 폐암으로 사망했다. '한국 바람'이 불던 초기에 한국에 오고 싶었으나 남편의 반대로 A시에 머물던 송인자 씨는 3년 상을 치른 후 만 60세가 되던 2014년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남성으로부터 정보를 듣고 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왔다.

송인자 씨는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6명의 노인을 간호하여 하루 6만 원씩의 일당과 약간의 사례비 등을 받았다. 다섯 달 만에 휴가를 내서 지방에 있던 중국인 동포 남성을 만나러 가기 위해 종로3가역을 경유하면서 '잘생긴' 한국 남성을 만났다. 길을 몰라 헤매는 여성에게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라”며 자판기 커피를 사주는 남성에게 호감을 느껴 의도를 모른 채 “점심을 사 드릴께”라고 ‘엉뚱한’ 제안을 하여 관계가 시작되었다. 식사를 하고 헤어지며 남성은 돈 5만 원을 건네고 전화번호를 물었다. 이후 남성은 값비싼 선물을 들고 송인자 씨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을 찾아와서 ‘놀다가’ 상당한 돈을 주고 갔다. 두세 번의 만남이 지속되면서 송인자 씨는 그 남성을 통해 “종로에 오면 이런 남자들이 많다”고 “이 길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송인자 구술녹취록 2022/23-25).

당시 송인자 씨는 ○○ 지역에서 일하던 조선족 남성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2018년 남성이 중국으로 귀국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중국 남성이 귀국한 후 호스피스 병동 등에서 간병을 하며 ‘빠가 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 속에서 “이 사람[한국 남성] 생각이 나더라고 (...)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남이면 뭐 일당 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웃음]”고 솔직히 말했다(송인자 구술녹취록 2022/26). 남편이 사망한 뒤 3년 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좋다는 동네의 말을 새기며 “진짜 온천하게 남자들 체신도 못 해 가며” 지낸 뒤 한국에 온 송인자 씨는 주도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갔고, 이를 통해 종3으로 오게 되었다. 종로3가 전철역은 송인자 씨가 ○○ 지역의 동포 남성을 만나러 가는 환승역이자, “잘생긴 한국 남성”과 조우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이후 생계 활동을 이

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종로3가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남성 연대’의 공간이며, ‘남성성’을 확인하려 이곳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남성들은 구매자이면서 새로운 성적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행위자이다(이희영·윤선미 2022). 체류 조건, 가족관계 혹은 직장 생활의 불안정성(precarity)이 높아지면서 몸과 마음이 취약해진 동포 여성들이 종로3가 주변의 임금이 낮은 음식점과 모텔 청소 등의 일을 하다가 종로3가와 얽히며 새로운 상황으로 배치되었다. 중국의 1960년대 사회주의 문화혁명 세례를 받았던 세대인 여성들은 2000년대 전후 중·고령의 나이에 이주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 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으나, ‘덜 힘든 노동’으로 5~6배의 돈을 벌 수 있는 종3에서 생활한 지 10여 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바로 내 직장이고 바로 내가 응당 할 일”이라고 여기는 행위자로 재구성되었다(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15).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넘어 ‘한국 바람’의 욕망을 실현할 경제적 대가와 동시에 친밀성이 결합된 특성을 보여준다.

4) 제도와 장소의 얽힘: 지하 역사, 골목 그리고 모텔

종로3가의 거리 성매매(street prostitution)를 구성하는 주요 환경은 소위 매칭이 이루어지는 종로3가 전철역 지하 역사와 출구 주변, 피카디리 극장 주변의 골목과 모텔이 그리고 성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모텔로 구성된다. 여러 인터뷰에 의하면 처음 이곳으로 오는 여성들 대부분은 지하 역사에서 커피를 파는 등의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다. 이용객이 많아서 눈에 잘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상은 기존 여성들의 텃세가 좀 더 심하기 때문이다. 종로3가는 지하철 1, 3, 5호선이 교차하는 곳으로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안내표를 따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용객 중 상대적으로 남성 노인과 중·고령 여성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익숙한 눈으로 지켜보면 다양한 형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 사이에는 각자가 선호하는 장소가 있고, 보이지 않는 협상 또는 세력 과시를 통해 ‘자리’를 지켜나간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대표적인 출입구 주변과 피카디리 극장을 둘러싼 □자 형태의 골목들은 가장 활발하게 소통과 접촉 그리고 거래가 발생하는 장소이다. 서거나 앉아 있는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다가와 거래하거나, 여성들이 골목을 다니며 제안을 하기도 한다. 단골이 형성된 여성들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이동한다. 파고다 공원과 종묘 공원 사이에 있는 이곳에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고령 남성들이 바둑을 두거나 사람들을 만나 '가성비' 있게 먹고 마시며, 필요한 경우 여성들과 적당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다. 무수한 종류의 음식점과 보석 가게, 국기사, 카페, 교회, 쪽방촌 혹은 폐가가 된 한옥, 세탁소, 맥·양주집 사이로 모텔과 호텔이 있다.

특히 모텔은 하루에도 여러 번 횡단-신체적 접촉과 작용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이다. 가격이 저렴한 5~6곳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거래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일 경우 5천 원에 대실이 가능한 A모텔, 3만 원 이상의 거래일 경우 7천 원~1만 원의 대실비를 내는 B, C, D, E, 그리고 F 모텔을 이용한다. 특별히 고액을 내는 손님일 경우 근처의 호텔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드문 사례이다. 여성에 따라 모텔 주인과 친숙한 관계를 형성하여 자신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곳 혹은 단속 등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을 정해두고 이용한다. 이진희 씨는 C 모텔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이곳은 무인텔로 한국 여성들이 덜 이용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종로3가 전철역 지하와 피카디리 극장 주변의 골목 그리고 여성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텔은 2004년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경찰의 단속과 폭력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¹⁵ 현장 조사에 의하면 담당 파출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이루어지던 단속이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줄었으나, 성구매 남성 혹은 여성들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신고'로 처벌받는 사례는 여전히

15 성매매방지법(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 성매매 여성을 사회구조의 '피해자'가 아니라 '행위자'로 보고 처벌하는 관행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경향신문 2024.09.23).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20~2022년 사이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약 7,885명이다(연합뉴스 2023.09.17). 성매매 관련 여성들을 지원하는 단체는 조속하게 성매매여성 비범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매매방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여성신문 2024.10.02).

다. 2000년대 중반 한국 남성과 재혼하고 종로3가에서 일해온 김미순 씨는 현재 까지 수십 번의 단속에 걸려 벌금형을 받은 결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다(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12). 2020년에는 한국 여성과의 다툼으로 손목뼈를 다쳐 15일 입원을 했지만, 전과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뒤 합의하고 말았다(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16). 남성 중에는 성관계가 끝난 뒤 ‘돈을 훔쳐 갔다’고 몰아세우거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신고한다’고 협박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하지만 결국 전과가 무서워 받은 돈을 쥐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여긴다. 종로3가에서 일한 지 오래된 이진희 씨는 한국 여성 ○○○의 신고로 26번 잡혀가서 벌금으로 “이천육백[만 원]을 다 줬고” 구치소에 갇혀있기도 했다(이진희 구술녹취록 2021/12). 자신을 종로3가에서 쫓아내려는 ○○○ 씨에게 돈이나 음식 등을 대접하지 않고 대적한 결과이다. 박순자 씨는 처음 이곳에 자리 잡을 때 한국 여성들의 텃세로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 잠시도 방심하기 어려운 이런 다툼을 “충소리 안 나는 전쟁”이라고 했다(박순자 구술녹취록 2024/2).

송인자 씨는 관련 단체의 아웃리치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1번 출구 쪽으로 왔다가 한국 여성에게 핸드폰을 뺏겼다.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협박이었다. 함께 대들며 싸우기도 했지만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 1번 출구를 멀리 돌아서 다니고 있다(송인자 구술녹취록 2022/18-19). 또 이정미 씨는 남성이 다가와 함께 모텔로 가는 것을 본 한국 여성들이 ‘내 단골인데 내가 왜 가냐고’ 우기는 경우 손님을 쥐버리고 상대하지 않는 편이다. 멀리서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여성이 해당 파출소에 신고하면 경찰 단속으로 벌금과 전과가 생겨 출입국에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이정미 구술녹취록 2022/18). 이처럼 성매매방지법은 현장에서 성매매 관련 여성들을 손쉽게 처벌하는 제도이면서, 좀 더 권력을 가진 집단이 하위집단인 이주 배경 여성들을 ‘손보는’ 폭력으로 작동하고 있다.¹⁶

또한 모텔은 여성들의 노동과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송인

16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현행 성매매 방지법이 관련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사회적 낙인 및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경향을 지적하고자 한다.

자 씨는 현재 서울에서 딸과 함께 산다. 한족 남편과 결혼한 딸이 자녀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해 2년 전 4대 보험이 되는 한국의 대형 식당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송인자 씨가 딸과 함께 보내는 날은 하루뿐이고, 일주일의 6일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한다'라고 말한 채 종로3가의 D모텔에서 생활한다. 모텔방의 커피포트를 이용해 끓인 물로 약간의 음식을 데워 먹으며 최소한의 일상을 갖는다. 작은 냉장고 속의 생수와 야쿠르트 혹은 탄산음료 그리고 탁자 위의 '커피믹스'는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기도 하지만 일이 끝난 후 여성들이 챙겨두는 물품이다. 거리에서 추위 혹은 더위를 견디며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가방에 챙겨온 떡, 밥 혹은 고구마 등과 함께 식사를 대체한다.

2008년 한국에 온 이정미 씨(당시 56세)는 경기도와 서울의 여러 모텔에서 청소일을 하던 중 알게 된 남성과 2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다. 오래 일했던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남성이 먼저 하룻밤에 일당의 두세 배를 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관계가 이루어진 이후 생활비를 대는 조건으로 함께 살게 된 것이다. 동포 여성들이 주로 취업했던 임금이 낮은 식당, 모텔 등의 노동과 종로3가 성매매가 상호 유동적으로 결합하고 있다. 거의 매일 쉬지 않고 하루 평균 5~6시간 이곳의 골목과 모텔을 오가며 일하고 생활하는 동안 종로3가는 여성들의 주요한 횡단-신체적 장소가 되었다.

5) 몸-도구-기계 그리고 질병

종로3가의 일반 모텔방에는 대부분 바깥이 보이지 않는 창문, 방의 2/3를 차지하는 침대와 TV, 대형 거울, 타올, 세면용품, 에어컨, 미니 냉장고 그리고 문으로 분리된 화장실 등이 있다. 1시간 내외로 대실 손님이 바뀌는 동안 이곳은 각종 세제로 '청결하게' 정리된다. 중·고령 남성을 대상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로3가의 여성들은 몸-도구이면서 기계와 결합한다.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발기 보조장치로 중·고령 남성의 성기를 확대한다. 이 기구 사용법은 여성들이 종로3가에서 갖춰야 하는 필수 요건이자, 이곳만의 특징이기도 하다. 여성들은 상대의 어떤 신체 조건과 정서적 상태에서도 사정을 목표로 자신의 열린 몸-

도구를 사용하며 일한다. 손, 입, 귀, 코, 성기, 눈과 피부로 서로의 호르몬과 바이러스, 각종 약제 그리고 말, 웃음, 폭력 등이 교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확진의 두려움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했다.

1990년대 말부터 ‘여관발이’를 한 이진희 씨는 종로3가 일을 병행하고 있다. 단골의 전화가 오면 어디든 간다. 2005년 자신과 중국의 ‘아는 언니’ 명의로 1천만 원씩 30회에 걸쳐 중국에 송금한 돈으로 어머니에게 30평대의 아파트를 사주고, 5개의 가게를 구매했다. 반년 동안 고향에 머물던 이진희 씨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온 후 본격적으로 종로3가에서 일했다. 이진희 씨는 남성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가능하면 “손님한테 모자도 다 썬워 주고 최선을 다 해주”며 단골이 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이진희 구술녹취록 2024/12).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단골손님 중 가능하면 5만 원 이상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이진희 씨는 현재 월세방에 거주하며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고 있다. 어머니에게는 전세방을 구해주고 생활비를 대며, “머리를 바꿔”(2024/5) 한국에 와서 장사하



그림 1. 000 모텔

자료: 저자 촬영.

는 남동생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일 오전 11시에 종로3가에 나와 오후 3~4시까지 버는 돈은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모은다. 집으로 돌아가면 다음 날 가지고 나올 커피를 냉동실에 얼린 후 텔레비전을 보다가 자는 것이 일상이다(2024/21). 2024년 현재, 이진희 씨(54세)가 중국보다 한국에서 생활한 시간이 더 많다. 그런데 2022년과 2024년 초 술을 마시고 자전거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나서 다리 등을 다쳤고 기존의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다(2024/7). 혈액 순환이 안 돼 온몸이 아프고, 두통이 심해 진통제를 먹고 일을 한다. 또 수면장애로 신경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있다(2024/11). 이런 생활을 감내하며 그동안 모아온 현금으로 이진희 씨는 한국에서 모텔 사업을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2002년 한국 남성과 결혼한 딸의 초대로 한국에 온 박순자 씨(1955년생)는 딸이 사는 D 시에서 공장일과 농사를 지으며 생활비를 보냈다. 딸 부부가 하던 농사가 폭우로 망해 머물 곳이 없어지자, 손주들 학비와 본인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고등학교 동창들의 소개로 서울에 왔다. 모텔 청소 3년을 하다가 가정집 숙식 도우미로 5년 정도 있었다. 그리고 간병사 자격증을 따서 대우가 좋은 요양병원에서 5년간 일했다. 그런데 새로 온 한국인 간병사가 사사건건 “꼬장”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참지 못하고 “두드려 놔”다가 권고 해직되었다(박순자 구술녹취록 2024/15). 요양병원보다 더 좋은 일을 찾지 못하다가 2015년 만 60세에 종로3가로 왔다. 요양병원에서 병구완했던 군 출신의 남성 노인이 박순자 씨를 “데리고 종로3가 탑골공원까지 데려다” 주고 “기계를 어떻게 쓴다, 이렇게 배워”주었다(2024/14). 중국에서 교사 경력에 있는 박순자 씨는 친절한 태도와 남성들이 ‘원하는’ 서비스로 군 장교 출신 단골이 생기며 상당한 돈을 벌었다(2024/18). 아침 8시에 나와서 저녁 6시까지 쉬지 않고 벌어서 형편이 어려운 딸 가족의 생활비를 보조하며 소형 자동차를 사주기도 했다.

그런데 2019년 암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 박순자 씨는 종로3가에서 “전쟁을 하느라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중국에서 시술했던 고리형 피임장치로 인한 염증 때문이라고 했으나, 암의 발병은 중장기적이며 복합적인 과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2002년 한국 이주로부터 시작된 ‘생존 회로’의 세계가 몸속으로

옮겨온 것처럼 보인다. 수술 후 1달을 쉬 후 다시 일과 치료를 병행하던 박순자 씨는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죽어도 집에 가서 죽자고” 2022년 9월에 중국으로 돌아갔다. 2년 정도를 중국에서 요양하며 그동안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50평 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노후를 대비한 것이다. 2024년 여름 다시 종로3가에 나온 박순자 씨는 “치료비”를 벌면서 대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손주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한편, 시간을 정해 한국에 와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교류하고 있다.

2000년대 전후 한국의 저임금 서비스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중국인 동포 여성들은 ‘코리아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60대 전후의 나이에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유입국의 남성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성적 서비스와 결합했다. 한국 여성들과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한국 남성들에게 성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 위안과 우월감을 제공하는 ‘순종적인’ 감정노동으로 돈을 모으고 있다.¹⁷ 이처럼 중국에 돌아가서 실현할 ‘꿈’을 위해 현재의 생활을 극도로 유예하며 생활한 여성들의 몸은 다양한 질병을 겪고 있다.

2020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간병하는 김미순 씨(66세)는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남편의 경제 능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집안일하며 종로3가에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당뇨병과 고지혈 증세가 심해 보름 이상 쉬기도 했다. 혈당이 400~500까지 올라가 병원에 입원하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지만, 처방한 약으로 생활하고 있다(김미순 구술녹취록 2021/6 & 18).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렇게 날씬했는데 몸이랑 이렇게” 망가졌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사는 아들이 혹시 이혼당할지 두려워 생활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10여 년 한국에서 일하며 70대가 된 송인자 씨는 기력이 떨어져 움직이기가 힘들지만, 자식들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하지 못한다(2022/9). 40대 중반이던 1997년 중국에서 암 수술을 했던 이정미 씨는, 2021년(69세) 종로3가에서 일해 모은 돈 2천여만 원을 주고 무릎과 허리 수술을 했다. 좀 더 일하기 위해서다. 2005년

17 글로벌 권력 구조 속에서 호치민 시 성산업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을 분석한 연구(Hoang 2010)는 인종화되고 젠더화된 환상이 성구매자의 기대와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2년 일했던 남편은 2007년 중국에서 암으로 사망했다. 2012년 한국에 왔던 아들도 2017년 알콜 중독으로 장례를 치렀다. 이제 스스로 노후를 돌 봐야 하는 이정미 씨는 당뇨 증세 때문에 먹는 것에 신경을 쓰며 생활하는 중이다(이정미 구술녹취록 2022/19). 60~70대의 이주 여성들에게 종로3가는 노후의 일과 일상을 만들어가는 장소가 되었다.

4. 한-중 생존 회로의 얽힘과 확장

이 글의 사례연구는 지구적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여성화된' 생존 회로가 단순히 경제적 분야에서 위계화된 노동 분업만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의 몸과 장소, 환경이 횡단-신체적으로 얽히며 확장되는 물질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즉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의 생명 정치가 몸과 장소를 횡단하며 물질화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동포 여성들과 종로3가의 마주침은 생존 회로의 이중적인 인간과 비인간들이 위계적으로 얽히며 창발적 세계-만들기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이후 중국과 한국을 주요 장소로 연결하는 돌봄과 가족부양 그리고 성매매를 결합하는 생존 회로가 횡단-신체적으로 확장하며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방문취업제에 이르는 한국의 이주 정책과 국제결혼 등의 제도와 더불어 합법, 비합법 신분으로 이주한 중국인 동포 여성들은 노동시장 속 낮은 임금의 건물 청소, 식당 주방일, 개인 가사도우미 또는 병원 간병사 등의 일자리를 거치며 중국과 한국의 가족을 부양하였다. 나이와 체력 등이 한계에 이르면서 여성들은 “돈 벌기 위해 이곳에 온 사람”으로 자신을 재정의하며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 정보를 통해 알고 있던 종로3가의 거리로 나섰다. 돈을 벌어 더 나은 삶을 희망했던 여성 중 이주 전에 ‘성매매’를 예상했던 사례는 없다. 한국의 가부장적 남성성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성매매 네트워크의 주요 행위자인 중·고령 남성들의 조직화 속에서 개인의 몸-도구로 수행이 가능한 종로3가의 ‘익명 성관매자’로 재구성된 것이다. 연구 사례

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경로는 친밀한 관계를 찾아가는 여성들의 행위와 결합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용적 섹슈얼리티의 실현과 경제적 추구는 모든 계층에서 상호 결합된 양상으로 드러난다.

둘째, 50~60대 나이의 동포 여성들에게 종로3가의 성적 서비스는 최소한의 가족부양과 생계유지 및 '코리언 드림'을 실현할 가성비 높은 "좋은 일자리"인 반면, 강도 높은 단속과 폭력, 한국 여성들과의 갈등, 그리고 성적, 감정적 돌봄을 일상적으로 체현하는 '위험한 노동'이기도 하다. 대부분 '돈 벌기 위해 한시적으로 머무는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의 정체성을 다짐하고 반복하는 과정에서 '박카스 아줌마'가 되어간다. 언젠가 중국으로 돌아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동포 여성들은 한편으로, 경찰의 단속, 한국 여성들의 권력 행사 등 이중 삼중의 폭력을 최대한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한편 일상을 최소화하며 유입국인 한국 남성들의 모든 성적, 감정적 요구에 '순종하는' 몸-도구-기계로서 고액의 단골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위치에서 자본주의적 격차를 넘어가는 이러한 번역의 과정은 질병과 고통이라는 횡단-신체적 결과에 이르게도 한다. 대사성 질병, 신체 골격적 이상, 암 진단에 따른 의학적 수술 등을 견디는 여성들의 몸은 생존 회로 속 계급적, 인종적, 성적 억압이 몸이라는 다공적 장소에 결합하며 생리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력을 보여준다.

셋째, 중국인 동포 여성들의 생존 회로가 종로3가의 성매매 네트워크와 횡단-신체적으로 결합하고 확장되는 과정을 기술한 이 연구의 결과는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섹슈얼리티와 비자연적, 일탈적 섹슈얼리티가 대립하는 것으로 구별하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을 넘어선다. 오히려 계급, 계층적이며 남성 가부장적인 규범과 질서가 주도하는 섹슈얼리티가 노동시장을 경유하며 성매매와 물질적으로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로3가의 중·고령 남성 구매자들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의 남성 가부장인 동시에 비자연적이고 일탈적 섹슈얼리티를 암묵적 적극적으로 조직화하는 주체이다. 중국인 동포 여성들은 중국-한국의 생존 회로 속에서 국제적 돌봄노동을 수행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성적 서비스에 참여하며 노후의 자신을 돌보려는 복합적 행위자이다. 결국 중·고령 남성을 유혹하여 피해를 주는 종로3가의 '박카스 아줌마'라는 블랙박스는 해

체된다.

지금까지 이 연구는 종로3가 이주 배경 여성들의 삶을 생존과 노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법적인 프레임을 넘어 중·고령 이주 여성들에 대한 사회, 정책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사회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재구조화 과정에서 이주 배경 여성들은 생존 회로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자이자, 국적, 문화, 성별, 나이 등에 따른 복합적 차별과 배제의 위험에 직면하면서 종로3가로 오게 되는 수동적 개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 여성 지원 정책(체류, 노동, 의료, 주거 등)이 비판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교신: 이희영(대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biograf@daegu.ac.kr)

Correspondence: Hee Young Yi(Professor, Dept. of Sociology, Daegu University)(biograf@daegu.ac.kr)

2025.01.15 접수, 2025.01.22 심사, 2025.02.20 게재확정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4.09.23, 처벌 앞세운 수사 관행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인식 오히려 줄었다.
- 권태환·박광성, 2004, 중국 조선족 대이동과 공동체의 변화-현지조사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인구학, 27(2), 61-90.
- 김은실·민가영, 2004, 조선족 사회의 위기담론과 여성의 이주 경험 간의 성별 정치학, 여성학 논집, 23(1), 35-72.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화선, 2011, 연변 조선족 농촌 여성들의 '한국바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한올아카데미, 129-143.
- 라셀 살라자르 파레냐스, 2009, Servants of Globalization: Women, Migration, and Domestic Work,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문현아 옮김, 도서출판 여이연.
- 로지 브라이도티, 2024, Posthuman Feminism, 포스트휴먼 페미니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 변혁의 힘, 윤조원의 옮김, 아카넷.
- 방미화, 2021, 중국 조선족 여성의 삶과 여성해방, 한국학술정보.
- 변혜정, 2007, 조선족 여성의 몸일 경험과 여성성의 변화 가능성: 목욕관리사의 몸일(body work)을 통한 '여자 만들기'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4(1), 111-150.
- 사스키아 사센, 2013, 전 지구적 경제와 젠더화의 전략적 구현들: 생존의 여성화, 동아시아 여성과 가족변동, 계명대학교 출판부, 21-52.
- 서정경, 2014, 중국 동포의 귀환과 한국사회의 과제: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의 중국동포'를 넘어, 디아스포라연구, 8(1), 71-94.
- 스테이시 앨러이모, 2018, Bodily Natures: Science, Environment, and the Material Self, 말, 살, 흙: 페미니즘과 환경정의, 윤준·김종갑 옮김, 그린비.
- 여성신문, 2024.10.02, 성매매방지법 20년, 이제는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 여필순, 2013, 중국 연변 농촌지역의 조선족 인구 감소와 지역성 변화-두만강변 조선족 농촌 마을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68-682.
- 연합뉴스, 2022.09.02, [조선족자치주 70년] ①인구 줄고 해외로 떠나며 '정체성 위기'.
- 연합뉴스, 2023.09.17, 성매매방지법 19년...여성계 "피해여성 처벌로 성매매 근절못해".
- 월간조선, 2023, 현장 속으로: 노인 대상 성매매 벌어지는 종로3가 "오빠, 3만원에 가자", 월간조선, 2023년 3월호.
- 이미애, 2008, 가리봉동 중구거리에서의 조선족 여성의 위치성에 대한 문화·지리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경, 2009, 사랑과 경제의 관계를 통해 본 이주결혼, 여성학논집, 26(1), 83-206.
- 이해웅, 2005a,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한구 이주 경험을 통해 본 주체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해웅, 2005b, 한국 이주경험을 통해 본 중국 조선족 기혼여성의 정체성 변화, 여성학논집, 22(2), 107-143.
- 이해웅, 2014,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30(1), 213-252.
- 이호선, 2012,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여성 연구 2: '박카스 아줌마'실태 조사2, 한국노년학, 32(2), 501-512.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이희영, 2014, 결혼-관광-유학의 동맹과 신체-공간의 재구성: 아시아 여성 이주자들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2, 110-148.
- 이희영, 2020, 은유로서의 '종3(鐘三)', 이동하는 '박카스 아줌마': 서울 종로 3가 성매매 공간의 정치학, 젠더와 문화, 13(1), 7-43.

- 이희영·윤선미, 2022, '박카스 아줌마'는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도 없다: 종로3가의 중·고령 성매매 네트워크 재구성, *한국여성학* 38(3), 179-214.
- 최재현·김숙진, 2016, 중국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지리적 해석: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이주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51(1), 167-184.
- 황정미, 2011, 초국적 이주와 여성의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쟁점들, *한국여성학*, 27(4), 111-143.
- Agamben, Giorgio, 1998, *Homo Sacer: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aidotti, Rosi, 2006, *Transpositions: On Nomadic Ethics*. Cambridge: Polity Press.
- Fischer-Rosenthal, Wolfram, 1990, Diesseits von Mikro und Makro. Phänomenologische Soziologie im Vorfeld einer forschungspolitischen Differenz. *ÖZS*, 15(3), 21-34.
- Gan, Yue, 2016, 한국 내 중국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실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Hoang, K. K., 2010, Economies of Emotion, Familiarity, Fantasy, and Desire: Emotional Labor in Ho Chi Minh City's Sex Industry. *Sexualities*, 13(2), 255-272.
- Rosenthal, Gabriele, 1995,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Frankfurt und New York: Campus.
- Rosenthal, Gabriele, 2014, *Interpretative Sozialforschung*. Weinheim & Basel: Beltz Juventa.
- Sassen, Saskia, 2002, Global Cities and Survival Circuits. In B. Ehrenreich and A. R. Hochschild(Eds.), *Global Woma*. New York: Metropolitan Books, 177-192.

‘Korean Wind’ Comes to Jongno 3-ga : A Study on the Entanglement of Migrant Women’s Survival Circuit

Hee Young Yi*

Abstract_This study examines how the survival circuits of Chinese Korean women are reconstructed in conjunction with Jongno 3-ga amid glob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Firstly, the encounter between Chinese Korean women and Jongno 3-ga, a place for middle-aged and elderly prostitution, represents a process of emergent world-making. Through this interaction, a survival circuit combining care labor, family support, prostitution, and sexuality — which has been centered on China and South Korea since the 1990s — is trans-corporeally expanded and reconfigured. Secondly, the sexual services in Jongno 3-ga serve as a cost-effective means for migrant women to support their families, prepare for old age, and pursue the “Korean Dream,” while simultaneously constituting a “dangerous job” characterized by frequent crackdowns, violence, conflict, as well as sexual and emotional caregiving. Third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challenge the dominant norms of Korean society that juxtapose natural and normal sexuality with unnatural and deviant sexuality, dismantling the existing black box of the “Bacchus lady.”

Keywords_Jongno 3-ga, Korean-Chinese Immigrant Women, Prostitution, Survival Circuit, Trans-corporeality

* Daegu University, Sociology, Professor, biograf@daegu.ac.kr